

푸른초장의집 19주년 감사 찬양 예배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과 자녀들을 돕기 위한 찬양예배에 LA 지역을 대표하는 여러 합창단이 공연을 했다. 행사를 주최한 푸른초장의집은 여성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주거지 마련에 120만불의 기금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난 19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부터 여성과 그 자녀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그들의 자립을 도와 온 비영리 기독교 단체가 있다. 바로 푸른초장의집(원장 엄영아)이다. 이 단체가 지난 15일 오후 5시 선한정지교회(송병주 목사)에서 창립 19주년 감사 찬양예배를 드렸다. 이 찬양예배에 참여한 합창단은 KAM코랄(단장 김영환), LAN남성선교 합창단(단장 유창호), 샬롬여성합창단(단장 이영희), 포이에마중창단(단장 손혜영)이다.

이날 찬양 예배는 설교를 통해 상처 받은 이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영적

인 안식을 주었다. 축사는 신여성 LA총영사, 강석희 어바인 시장, 오득재 OC한인회 회장 등 사회 각계에서 보내 왔고, 설교 후 LAN남성선교합창단, 샬롬여성합창단, KAM코랄 순으로 각각 평화의 기도 외 2곡, 아베마리아 외 2곡,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 외 2곡의 찬양을 불렀다. 이 외에도 포이에마중창단은 헌금송을 불렀다.

사역 간증시간을 통해 엄영아 원장은 “가정폭력으로 여성들과 그 자녀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 수 밖에 없다. 저희는 더스틴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쉐터 위치는 절대 비밀에 부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은 연락바란다. 저희 쉐터에서는 3개월동안 평균 다섯 가정이 아침부터 예배로 시작해 가정폭력 인식 교육, 부모 지도 교실, 내적 치유 사역, 자립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해 마음을 치유할 뿐 아니라 자립까지 돕고 있다. 하지만 3개월 후에 마땅히 갈곳이 없는 분들이 많아 그들이 살 여섯 유닛의 주거지 마련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120만불의 기금이 필요한데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설교와 축도를 맡았던 송병주 목사는 설교시간에 시편 22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으로 ‘구명 난 마음과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송 목사는 “본문은 절망한 여인들의 노래이다. 나의 여동생도 비슷한 일을 경험했을 때 같이 절망하고 위로와 힘을 못 준 것이 아직까지 후회로 남는다. 이 상처가 상처로 끝나면 문제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줘야 한다. 십자가라는 것은 사형도구였지만 이것을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몰약과 포도는 밟히고 깨질 때 더 고운 향과 깊은 맛을 낸다. 이 단체를 찾는 분들이 고통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향을 내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워지길 축복한다”고 전했다.

예배의 사회는 본 선교단체의 스태인 박현숙 씨가 맡았고, 대표기도는 정이철 장로가 맡았으며, 특송은 글로리아아가 대(선한정지교회)가 불렀다.

문의 : 714-532-2787 / www.hogp.org
빅터 박 기자

갈보리민음교회 창립 8주년 맞아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 거행



갈보리민음교회가 임직식을 거행하고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세웠다.

최근 교회 통합으로 교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갈보리민음교회(강진웅 목사)가 지난 15일 오후 임직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강진웅 목사가 사회를 맡았고, 선교와 전도를 위한 협력목사로 시무하고 있는 박형택 목사가 권면을 맡았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이 교회는 창립 8주년을 맞아 명예안수집사 4명, 안수집사 11명, 명예권사 6명, 권사 14명

이 임직받고, 안수집사 1명과 권사 9명이 새롭게 취임했다.

이날 임직예배는 조영환 장로의 기도 외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원로)가 ‘섬김의 자세’라는 제하로 설교했으며, 축사는 이상훈 목사(성광장로교회 담임)가 맡았다.

▶주소: 3300 Wilshire Blvd. LA, CA 90010
▶전화: (213) 365-8880

정하나 기자

K-CCM으로 복음 전파한다



한류의 열풍 위에 복음을 전하려는 사역자들이 미주 순회공연을 하고 있다.

한류비전콘서트(KWJM(한류문화선교회) 주최로 13일 오후 7시 가나안교회(이철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공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한국 K-CCM 가수인 Virus, Ye won, Rose M, LAST 및 이수정 씨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 공연은 KWJM이 2013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선교 공연에 앞서, 비전을 공유하고 동역자를 찾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찬양과 선교 축제 형식으로 열렸다.

KWJM은 전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K-POP의 물결 위에 크리스천 음악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한류 문화선교회다. 조효성 목사(KWJM 대표)는 “한류는 하나님이 만든 미션로드다.”라며 이 단체를 설립한 취지를 전했다. 이 단체는 이번 순회공연 중 열반인침례교회, 글로발선교교회, 샬롬장애인선교회 등에서 공연했다.

토마스 맹 기자

남가주밀알선교단 사랑의 캠프

UC 산타바바라에서 420명 모여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영선 목사)이 매년 여름에 갖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사랑의 캠프’를 서부지역(밴쿠버, 시애틀, 북가주, 남가주) 사랑의교실 연합 및 남가주지역 교회들(ANC온누리교회, 감사한인교회, 세리토스장로교회, 주님의빛교회, 주님의영광교회, 나성한인교회, 토렌스제일장로교회, 작은예수회)이 참여한 가운데,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UC 산타바바라에서 420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개최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사랑의캠프는 ‘우리 모두 하나(One Body in Christ)’라는 주제를 가지고, UC 산타바바라의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Arts & Crafts, Group Activity, 바닷가 놀이, 댄스파티, 수영 등의 프로그램을 가졌다. 또 이번 캠프 중 특별히 성인들을 위해 2번의 특

강시간(‘성인장애인의 Quality of Life’ 등)이 있었다. 전체 프로그램을 위해 자원봉사로는 PPOG(Passionate People of God)와 TRAC(The Roof Above Christ) 팀이 섬겼다.

선교단은 “특별히 다른 모양의 지체들이 모여 연합한 지체가 중심이 된 이번 캠프에는 장애인과 봉사자들이 한마음이 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제를 나눴다”고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 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암 치료의 희소식

“대통령 각하 암을 정복했습니다.” 외 다수의 저자.

스페인에서 수술 않고 항방으로만 암치료를 유명한 한동규 박사님의 미국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세포가 고름으로 녹아나오지 않으면 암 치료 약이 아님. -한동규-

미국 연락처: 임마누엘선교회 T. 213-235-5800 / 213-252-9036

천상의 메아리 맑은 영혼의 몸짓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그들이 온다!

월드비전 신명회 합창단 World Vision Korea Children's Choir

2012 전 미국 순회 콘서트

희망을 전하는 우리의 노래

전세계 음악 전문가로부터 ‘천상의 메아리’라는 찬사를 받으며 최고의 합창단으로 평가받는 월드비전 신명회 합창단이 오는 7월 남가주를 찾아옵니다. 소프라노 홍혜경과 카운터테너 이동규 등과 같은 많은 음악인을 배출한 50여년 전통의 월드비전 신명회 합창단은 수정 같은 목소리와 최상의 하모니로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여러분의 한 여름밤을 아름답게 수놓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성과 더불어 전세계의 고통 받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되어 사랑과 나눔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공연 ‘희망을 전하는 우리의 노래’에 한인 동포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 공연은 미주 한인인을 위한 무료공연입니다.

<p>7월 25일(수)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1750 North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323) 913-4499</p>	<p>7월 27일(금) 오후 7:30 LA 사랑의 교회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213) 975-1111</p>	<p>7월 28일(토) 오후 7:00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562) 860-5451</p>	<p>7월 29일(일) 오전 11:00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818) 366-0089</p>	<p>7월 29일(일) 오후 7:30 리버사이드 한인침례교회 5413 Tyler St. Riverside, CA 92503 (951) 687-4070</p>
---	--	---	--	---

공동주최: World Vision 월드비전 한국일보 공연문의: 월드비전 코리아데스크 1-866-육이오-1950 / 웹사이트: wvkor.org

월드비전은 1950년에 한국 전쟁고아와 미망인을 돕기 위해 설립되어 현재 100여개 국에서 긴급구호 및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비영리 기독교 구호기관입니다.

월드비전(구 신명회)은 통일교와 무관한 세계적인 비영리 기독교 구호기관이며, 월드비전 신명회합창단은 월드비전에서 운영하는 50년 전통의 세계 최고의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선한청지기교회 송병주 목사

설교에서 중요한 건 '진정성'

포인트는 하나님이 우릴 위해 무엇 하셨는지 보는 것

건강한 목회, 소박한 목회, 그것이 나의 목회



송병주 목사는 교회성장과 대형교회를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작지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꿈을 품다.

많은 목회자들이 수십년 전부터 시작된 교회대회를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회성장을 바라고 꿈꾸고 있지만, 목회 성공의 척도가 꼭 큰 교회 아니어도 된다는 목회자들도 많다. 웨스트코비나에 위치한 선한청지기교회 송병주 목사도 그 중의 하나다. 주중에는 청바지에 운동화, 반팔티 차림으로, 담임 목사실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촐한 교회사무실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방에서 업무를 보는 그는, 성도들이 캔 커피를 사주고 와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목회자다. 소박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꿈꾸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교인들과 같이 커피를 마시며 교제 나누는 목회자, 거창한 목회, 위대한 목회를 표방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소박한 목회를 꿈꾸시는데요, 계기가 있으신가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야망 때문에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시대적 상황을 볼 때, 대형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때문입니다. 큰 교회일수록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세번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뚜렷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주신 부르심은 대형교회를 이루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50~60대 목회자들은 교회성장론의 수혜자들입니다. 80년대부터 교회성장론에 기초해서 복음주의 운동이 시작돼 교회가 대형화 됐습니다. 지난 20~30년 동안 교회성장론이 한국교회를 휩쓸었는데 이제는 바뀔 때도 됐습니다. 그동안 교회성장론에 모든 것을 걸고 봉사했지만, 그만큼 회의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금껏 5명의 목회자를 만나 그분들이 제시한 비전을 따랐는데 나중에 보니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목회자들의 야망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큰 계기가 됐습니다. 솔직히 큰 바다에 큰 유람선을 띄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종이배를 하나님께서 보여 주셨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큰 바다에 큰 배를 띄울 필요는 없습니다. 시냇물에 띄는 종이배도 큰 강에 도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묵묵히 한 교회를 섬겨왔던 전임목사님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만나 본 목사님 중에 뒷모습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후임목사와 전임목사 사이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서로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전임목사님과 마음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과 같은 스토리를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요. 그런데 목사님은 끝까지 원치 않으셨습니다. 당신

스스로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전임으로서 깨끗하게 물려주고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요즘은 특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전임목사님은 다 내려놓고 타국으로 선교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취임할 때 국민 목사가 아닌 동네 목사로 살고 싶다는 뜻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영향력은 필요없고 누구도 만나고 싶은 목회자가 되자는 것이죠. 그런데 시작해 보니 골목대장의 유혹이 있더라고요.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다는 것을 알고, 항상 죄인이라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의 소박한 꿈은 '이제 위대한 비전 이야기는 줄이자'는 겁니다.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꿈꿨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 앞에서 도망갔지만, 우리는 무덤 앞에서 울었던 여인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보내셨던 때'를 제 목회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자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밤상 공동체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 공동체, 그리고 키팅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식사하고 아픈 것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그렇게 소박하게 생각하고 소박하게 가자는 겁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지교회회를 세우는 교회가 많습니까.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인 꿈이 있다면 분립 개척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중형교회가 협력해서 한 교회 개척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성도 중 10분의 1을 다른 교회로 파송한다든지, 젊은이들이 많아지면 다른 교회에 교사로 파송하고, 교회에 역력이 생기면 연약한 교회에 사례비를 지원해 주는 운동을 펼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지역에 스테이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치노 지역에 스테이션을 만든다면 거기서 스몰 그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일에는 개척교회에 임대해 주는 겁니다. 연약한 교회를 지원하는 일, 공생보다는 상생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설교가 파워풀하고 절박감이 느껴집니다. 준비는 어떻게 하고 메시지를 전달 때 가장 중요시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양들이 원하는 것보다 양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줘야 합니다.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같이 느껴줘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저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신학과 경험으로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고민하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그 사이에 목회자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보다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보내신 이들의 아픔과 눈물을 헤아린다면 당연히 절박함이 묻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도들의 아픔이 무엇인가, 그것이 설교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목회적 설교보다 구속사적 설교가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것이 목회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 좀더 하나님의 관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그런 열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목회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삭개오가 열심히 있었으면 예수님 앞에 나가 앉았을 겁니다. 근데 그가 늦게 나타난 이유는 '나같은 이를 만나주겠는가'라는 절망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저는 삭개오처럼 열심히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보다 차마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고, 차마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삭개오의 마음, 그런 삭개오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게 더 바른 방향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보는 구속사적 설교, 그게 제 설교의 주된 포커스입니다.

방법적으로는 성도들이 한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 작업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설교는 방법보다는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성도들이 당황해 하지만, 솔직하게 '제가 이 모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것은 목사의 장점 때문이 아니라 목사의 약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의 약점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잘난 이야기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목사의 못난 모습, 이것을 갖고 몸부림치는 모습에 성도들이 바뀝니다.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이룬 것처럼 설교하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내가 이 모양입니다' 라고 설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멩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진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귀국 자동차운송 업계최저 \$950

무료 전화 877-580-2424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Q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미연방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약도 Bus 2071 Lajolla Fairfax ORT 메트로 Wilshire

평신도가 진단한 한인 이민교회

이민신학연구소는 지난 1년 3개월에 걸쳐 <북미주 한인교회 실태조사>를 수행하며 한인교회의 현 주소를 확인했다. 연구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한인교회의 미래를 계획하는 전략테이블을 2박3일간 개최했다.

이 전략테이블에는 소장 오상철 목사를 비롯해 정인수 목사(아들란타연합장로교회), 민중기 목사(충현선교회),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박세현 목사(남가주교협 총무) 등 교계 1세 지도자들이 참여했다. 특히 2세는 민청목사(Covenant Fellowship Church, IL), 박영배 목사(Newlife Mission Church, CA), 정대성 목사(Newlife Mission Church, CO) 등 미국 내 2세 목회를 이끌고 있는 1.5세 출신 목회자들이 전국에서 참여했고 나성영락교회 교육부를 이끌었던 1.5세 목회자인 노승환 목사(토론토말미교회)도 캐나다에서 참여했다. 평신도 중에는 박상원 장로(미주한인재단 전국총회장)가 참여해 큰 의미를 더했다.

한편, 본지는 이번 전략테이블에서 나온 각종 평가와 견해들을 4회에 걸쳐 연재할 계획이다. 1세 목회자와 2세 목회자의 평가에 이어 이번에는 평신도들의 평가를 실는다. -편집자 주



박상원 장로

제3회) 평신도 테이블 참가자:

박상원, 최남수, 서준석, 빈센트 김, 김경숙, 이일

설해 이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들에게 학습의 중요성을 다시 알리고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도록 도와 한인사회의 발전과 이민교회 역량의 극대화를 꾀해야 한다.

4. 이민교회는 미주한인사회에 비교적 긍정적으로 공헌하고 기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미주한인사회에 참여해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5.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영적인 회복을 돕고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데에 충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와 목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6. 교회의 기능 가운데 성도들의 고민과 문제를 듣고 이를 해결해 주는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 내에 전문상담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교회 외부의 전문상담기구와도 연합할 필요가 있다.

7. 현 미주한인 이민교회의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힌 것은 목회자 자질 문제다. 목회자 자질의 문제는 교회 리더십을 잃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혼란과 갈등, 분규를 일으킨다.

8. 그동안 한인교회가 미주한인사회의 중심이 되어 한인들의 정체성 유지를 돕고 한인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이민사회 봉사에 앞장서 왔다. 교회를 모임의 장소로 개방하고 한인공동체를 위한 장소로 제공해야 한다.

9. 이민한인교회 평신도들이 바라는 바

랍직한 목회자상은 사랑을 실천하며 한인 이민자의 정신적 지주로서 섬김의 리더십을 겸비한 온유한 모습이다.

10. 앞으로 한인교회는 2세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 다민족화된 모습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학교는 재교육의 주역이 되어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돕고 선교의 국제화에 앞장 설 것이다.

11. 평신도의 위상을 높이고 그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목회성공의 핵심이다.

결론: 사회참여

한인기독교인은 미주한인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우리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미국화 된 모습으로 미국의 주인 된 민족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한민족의 문화와 정신 그리고 한인 정체성을 지니고 미국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답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 시점에서, 미주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미주한인교회는 미주한인을 위한 봉사 및 사회운동의 중심 현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교회는 신학교와 함께 재교육의 역할을 감당하며 모국과의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미주한인사회의 발전과 미국 내 한인 위상을 높이는 일에 미주한인교회가 앞장서 중심세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한인교회는 예배가 계속되는, 항상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한인사회 대표행사에도 예배 순서가 포함되어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감사예배를 드리는 한인사회가 되어 할 것이라 고 본다.

서론: 북미주전국한인교회실태조사를 중심으로 2011-2012년도 내셔널서베이 전략테이블에서 다룬 평신도 설문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전략테이블에 참석한 평신도의 입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 방향

1. 미주한인은 한국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한국에 문화적, 언어적 뿌리를 두고 있다. 이들은 미국에서 미국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한인교회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이들이 지닌 특수성을 중심으로 그려져야 한다.

2. 한인교회는 1세 중심의 예배로 자리를 굳히고, 그 기반 위에 2세와 3세를 대상으로 한 영어 목회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평신도 1세는 미국으로 이주 후 생업 활동을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학업을 대부분 포기하거나 정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교회는 평신도의 평생 학습연장을 적극 권장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학습 프로그램을 개

LA비전교회 성령의 감동으로 입당예배 드려



LA비전교회는 정해진 예배 순서 없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입당예배를 드렸다.

LA비전교회(김대준 목사)가 15일 오후 4시에 입당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특별히 찬양과 기도, 말씀과 축사, 권면 등의 모든 순서를 없애고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드러져 참석자들에게 은혜를 더했다.

김 목사는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가 아름다웠지만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이것이 입당 과정 중에 제가 받은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

라며 "새 예배당에 들어 오기까지 하나님의 섬세하고 경이로운 인도하심이 있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할 때, '건물보다 사람을 건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순행하는 착하고 충성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소: 520 S. Lafayette Park Pl., LA, CA 90057

토마스 맹 기자

코람데오교회 개척, 22일 첫 예배



코람데오교회가 22일 치노힐스 레크레이션센터에서 새출발을 위해 예배드린다.

코람데오교회(구병용 목사)가 오는 22일 오후 3시 LA동부 치노힐스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합쳐져 첫걸음을 내딛는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의 코람데오(CORAM DEO)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담고 있다.

창립 예배는 동부지역교역자협의회 회장 김민선 목사(엠마오교회)의 설교, 문병용 목사(유니온교회)의 기도, 고태형 목사(선한목장장로교회)와 한희준 목사(남가주주님의교회)의 권면, 양성필 목사(하나로커뮤니티교회)의 축사, 구병용 목사의 인사에 이어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의 축도로 진행된다.

구병용 목사는 "코람데오교회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민사회에 힘이 되고 이민자의 빛이 되어, 사람들의 친구로 찾아오신 예수님(눅7:34)을 닮기에 힘쓰고자 한다"라며 "그러므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섬기는 사역'에 전념할 것이다. 또 소유를 주장하지 않으며 이웃과 사회를 섬기고 나누는 일에 힘을 다할 것이다. 교회의 재정과 운영은 투명

하고 정직하게 관리할 것이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대신대, 종신대학원을 졸업한 구병용 목사는 대구 동신교회에서의 사역, 인도 선교와 미국 하나로커뮤니티교회에서의 목회 경험이 있다. 코람데오교회는 넓은 주차장과 교실, 놀이터를 구비한 치노힐스 레크레이션센터를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교회 측은 "복음을 들어야 할 분, 교회를 정하지 못한 분, 개인 사정상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분들을 위해 교회가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다. 주일 학교 각 부서의 전문 교역자들이 자녀들의 신앙과 인성교육을 위해 기도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배시간: 주일 오후 2:30분
금요일 저녁 8시

주소: 2000 Founders Dr. Chino Hills, CA 91709

문의: 626-610-6392(구병용 목사)

홈페이지: coramdechurh.us

토마스 맹 기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한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한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어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감각의 처방
한약으로 한방에 감기 댕
증상별 처방/ 천연 한약재
3-7일분 처방 가능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여행자 보험 / 건강보험/교통사고 (스마트폰 검색가능)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수기치료 의료 선교사 수강생 모집

수기치료 의료선교사 17기, 2기 생 교육을 무사히 완료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사명으로 시작한 의료 선교사 육성 사역은 축복 가운데 3기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수기치료 의료선교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본 재단에서만 시행하는 교육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손 하나만으로 각종 질병을 치료할수 있는 완벽한 치료사를 육성하며 수료가 끝난 의료 선교사님들은 선교의 불모지에서 치료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하고 계십니다.

모집안내

신청자격: **하나님을 영접하신분으로 선교의 사명이 투철하신 남녀 성도분**

모집대상: 1. 목회자 또는 선교사님 (해외 파송 희망 선교사)

2. 선교의 사명을 가진 평신도로서 의료선교사가 되고자 하시는분

3. 수기 치료술을 배워 단기 선교나 의료 봉사를 원하시는분

모집인원: LA 지역 남녀 10명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원을 제한 함)

Orange County 지역: 남녀 10명

교육기간: 총 20주 (매주 2회 2시간 교육)

접수마감: 2012년 7월 30일 (월요일)

개강일자: 2012년 8월 6일 (화요일)

교육장소: LA지역- 2836 8th St. #106, Los Angeles

Orange County-8218 B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접수처: 세계의료선교사 육성 재단
213-381-7273 / 213-605-2928

교육강사: 박승부 장로 (Dr. Charlie Park) 수기치료의 세계적 권위자 국제 대체의학 전문대 학장

교육내용 (근육 통증 전문 치료술)

1. 근육 교정학: 통증을 전문치료하는 의술.
2. 체형 교정학: 변형된 체형을 교정하는 의술.
3. 척추 교정학: 비튼 척추를 만들어 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의술
4. 영양 물리학: 식품의 음양과 인체의 음양 (자연식의 원리)

교육의 특징

수기치료의료선교사 교육은 약품이나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만을 사용하여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의술로서 한의학, 카이로프랙틱, 근육전문 치료학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하여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교육을 시행하는 유일한 선교법인입니다.

수료후 특전

1. 수료증 및 수기치료 의료선교사 자격증 수여.
2. 해외 파송 선교사 후원하여 드립니다.

선교 법인 세계 의료선교사 육성 재단

2836 8th St. Los Angeles, CA 90005

문의전화 : 213-381-7273 / 213-605-2928 / 562-547-8653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흡수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심장, 뇌 혈전용해 근육강화

혈액 해독 / 기력회복

뼈, 골수 영양공급

천연 항염, 혈관 탄력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더 많은 효능 사례는 www.sellacare.ne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셀라케어 효능사례

<p>발작 · 자폐증 · 무감각증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 간질과 발작증세 자폐증에 무감각증으로 폐인상태, 셀라케어 복용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한국) 010-5599-2633</p>	<p>관절염 · 변비 · 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되었으며, 큰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CA)</p>	<p>중풍 · 마비 · 당뇨 · 고혈압 15년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후 7개월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회복됨. 민현자(65세, 한국)</p>	<p>위암 3기 카이저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는데 M3셋트를 3개월 먹고나서 암수치 1.36으로 정상으로 돌아와서 수술을 하지 않게 되었음 Mr. 박(72세, LA) 213-268-8381</p>
<p>자폐증 가족과 의사소통이 되지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발 끝이 나무같이 딱딱했는데 복용 열흘 후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졌으며 가족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상태좋아짐. 정대필(16세), 010-5409-8826</p>	<p>폐암말기 50세에 찾아온 암으로 고통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부터 암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p>	<p>혈액 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해 왔는데, 2달복용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010-6612-0191</p>	<p>부정맥 · 해소 · 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욱현(77세, LA) 213-500-4471</p>
<p>유방암 완치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달동안의 많은양의 M3셋트를 주스에 갈아 복용후 심한 호전반응을 겪고 완치됨. 그후 4년뒤 늦둥이를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완쾌. 양호연(42세, LA) 213-215-6991</p>	<p>간질 ·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몇번씩 간질을하여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수있을정도로 건강함. 간질중세도 없어짐. 복용전 190 lb가 125 lb로되고 시력, 피부, 머리카락 좋아짐 오윤희(26세, CA) 213-604-1992</p>	<p>위염 · 변비 복용 하루 지나면서 위가 편해져 음식을 먹게 됨. 일주일에 한번 보던 변을 지금은 매일 갈수있게 되어 행복해 함. 이주영(63세, LA)</p>	<p>불임 · 생리통 심한 생리통을 겪으며 결혼한지 3년동안 아기가 없어 병원에다니며 아기를 갖으려 애쓰던중 셀라케어 M3 셋트를 3개월 복용후에 임신이 되어 온가족이 기뻐하고 있음. 김미정(26세, FL)</p>
<p>아토피 · 건선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1개월후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자고 키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LA) 213-215-6991</p>	<p>파킨슨 병 3일 복용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찬양사역자로 다시 일할수 있을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됨. 브라이언 김(70세, VA)</p>	<p>녹내장 M3 셋트 복용중 양쪽 눈에서 많은 노폐물이 나온후 두달 후 수술하지 않고 회복되었음. 김신호, (67세, LA) 323-347-9415</p>	<p>직장암 ·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후 대장속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있던 큰혹들이 줄어들며 복용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LA) 323-533-0624</p>
<p>반신불수 · 심한욕창 10년이 넘도록 혼자서 대소변이 불가능 했으나, 복용 3일 후부터 아들도 알아보고 조금씩 몸을 움직이더니 복용6개월후부터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걸어나가고 있음. 박경숙(82세, CA)</p>	<p>전립선 암 · 부정맥 소변 힘들고 밤에도 7번씩 소변을 보았으며, 심한부정맥으로 고생하였음. 복용두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않게 되고 혈액검사때마다 혈관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CA)</p>	<p>대장암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치료를 받던중 M3셋트를 먹기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석달후 완치되었음. 한국, 010-7928-7986</p>	<p>비만 · 우울증 · 야뇨증 어려서부터 심한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 lb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시작하면서 현재는 130 lb로 유지됨. 우울증, 야뇨증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음. 샘 양(15세, LA) 213-219-7746</p>
<p>자가 면역 질환 희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상실, 지속적인 증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3일후 피검사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곽, (NJ)</p>	<p>당뇨 · 고혈압 30년된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중 M3셋트 복용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직전의 다리와 온몸의 검은 피부가 깨끗하게 완치됨. 오일동(52세, CA) 213-258-5321</p>	<p>우울증 · 불면증 우울증이 너무심해 병원에 입원. 불면증으로 수면제 장기복용. M3셋트 복용한달후 우울증이 좋아지고 잠도 잘자게 되었음. 손정희(29세, LA)</p>	<p>심한엘러지 · 하지정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세우는 고통중 M3셋트 복용3일후 완치. 심한심장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정수지,(61세, CA) 310-843-0033</p>

베벌리 힐스 지점 310-800-8242 LA 본사 213-215-6991 621 S. Virgil Ave #470 Los Angeles CA 90005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CCM 가수의 크로스오버... 제2, 제3의 소향을 꿈꾸다



크로스오버를 시도했던 블랙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이들은 MBC <나는가수다>에서 임재범의 '여러분'을 피쳐링하기도 했다.

CCM 가수 A 씨. 그는 꽤나 촉망받던 신인이었다. 독특한 음악적 색깔로 마니아층까지 상당수였다.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의 러브콜은 당연했다.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러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세상으로 나가자고 결심했다. A 씨는 CCM 활동을 접고 가요음반 작업에 매달렸다.

모든 것을 쏟았다. CCM 가수라 실력이 안된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2년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곡을 쓰는 데만 집중했다. 모두가 사랑을 노래하는 그곳에서 진짜 사랑을 전하고 싶었다. 비로소 완성된 음반을 손에 쥐었다. 가슴이 벅찼다. 이제 노래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현실은 차갑기만 했다. 기획사 없이 음반을 홍보하기란 하늘에

서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려웠다. 방송국 피디(PD) 등을 만나 사정하는 일들이 잦아졌다. 라디오에 노래 한 소절 내보내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했다. 하지만 그것조차 반쪽이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곡이 쏟아지는 가요계에 기다림이란 없었다. 단기간에 승부를 보지 못하면 금세 외면 받는 게 그 바닥 생리란다. 그렇게 1년, A 씨의 짧은 도전은 끝났

다. 가지고 있던 돈도 바닥났다. 그래도 후회는 없다. 비록 지하 단칸 월세방 신세지만 깨달은 게 많다. 후에 다시 도전해 볼 생각이다. 언젠가 길이 열리리라 그는 믿고 있다.

CCM 가수에게 대중가요계로의 '크로스오버'(crossover; 서로 다른 음악 장르들을 넘나든다는 의미의 단어. CCM 가수의 대중가요계 진출을 뜻하기도 한다. - 편집자 주)는 이렇게 어렵다. 눈에 띄는 성공사례가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그 원인을 짚어봤다.

CCM 시장과는 전혀 다른 생리

크로스오버를 시도하는 CCM 가수들은 대부분 '선한 영향력' 확대가 목적이다. 일반 대중가수로 인지도가 올라가면 그만큼 신앙을 전하는 데 수월하기 때문이다. 물론 CCM 가수도 뮤지션이기에 음악적 욕심도 작용한다. 보다 넓은 곳에서 자신의 실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CCM계에서 내로라 하는 가수들이 이런 의도에서 대중가요계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만 봤다. 가요 1집 음반 이후 활동을 뜸해지거나 아예 자취를 감춘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다 결국 CCM계로 돌아오는 패턴을 반복한다.

다양한 이유가 있다. 일단 대중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음악적 완성도가 꼽힌다. CCM 시장은 일반 가요시장에 비해 턱없이 좁다. 이런 곳

에 있다 보면 경쟁이란 것이 그리 익숙지 않다. 반면 가요계는 그야말로 적자생존의 정글과 같다. 자연히 살아남기 위해 치열해 질 수밖에 없다. CCM 가수는 처음부터 그가 처한 환경으로 인해 '큰물'에서 놀 수 있는 체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CCM 가수가 실력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반론도 많다. 신앙적 이유로 CCM 가수가 된 것이지 실력 때문이 아니라는 항변이다. 그런데도 이들의 도전이 실패로 돌아가는 데는 음악 외적인 부분, 즉 인맥과 홍보 등 대중가요의 상업적 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때 크로스오버를 시도했던 CCM 가수 김명식 씨는 "대중가요계는 노래를 잘 하고 춤을 잘 춘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한 명의 성공한 가수 뒤에는 거대 기획사와 방송국, 음반사 및 음원 기업 등의 공조가 있다"며 "순환주기도 짧아서 빨리 대중들의 눈에 띄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는 음악적 완성도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사 전달의 한계를 꼽기도 한다. 김 씨는 "가요에서 신앙적 표현은 당연히 직접적일 수 없다. 그렇다고 아주 세속적일 수도 없다"며 "그런데 세상 가요의 90%는 자극적이고 독한 사랑 이야기다. 나머지 10%만이 일종의 '착한 사랑'을 노래한다. 대중가요계로 진출한다고 할 때, 사실은 그 10%를 보고 가는 것"이라고 크로스오버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어느 CCM 가수의 콘서트 장면

'블랙 가스펠'이라는 장르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룹 '헤리티지' 역시 지난 2006년 크로스오버를 선언, 1집 음반을 내고 야심찬 활동을 시작했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간 멤버 교체 등 내부 문제가 있긴 했지만 CCM과는 다른 가요계 생리가 주원인이라는 평가다.

헤리티지 리더 김효식 씨는 "기획사 문제도 있었고 무엇보다 대중음악은 굉장히 짧은 기간에 어필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다. 이런 것에 적응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연예인에 CCM 가수보다 몇 배 사례금

또한 김 씨는 "기독교 영역의 가수가 일반의 그것으로 진출하는 것에 민감한 시선들도 작용했다"면서 "기독교 외부는 물론 내부서도 CCM 가수의 일반 가요계 진출을 굽지 않게 보는 이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크로스오버의 어려움 중에는 '종교적 핸디캡'도 빼놓을 수 없다. 요즘같이 기독교의 이미지가 추락한 경우엔 더욱 그렇다.

그런데 나가기는 어려워도 들어오는 게 쉽다. 다시 말해, CCM 가수가 대중가요계로 진출하는 것엔 여러 제약이 따르지만 반대로 대중가수가 기독교 내부로 진입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오히려 특혜까지 있다. 일부 교회는 전도를 이유로 '연예인'들을 각종 집회에 자주 초청하는데, 그 사례비는 CCM 가수의 몇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찌보면 당연하게 여길 수 있지만 이런 관행이 CCM 시장을 위축시키고 이는 크로스오버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CCM 가수는 "한 교회 집회에 어느 연예인과 함께 초청됐는데 후에 사례비 차이를 알고 자괴감을 느꼈다"며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노래 몇 곡만을 부르고 금방 가버리는 그 연예인에 비해 내가 홀대받는다는 생각은 떨칠 수 없었다. 크로스오버가 어려운 것은 CCM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일 텐데, 교회가 이를 자초한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단순 비교가 어렵지만 미국의 경우 CCM 시장은 일반의 그것에 못지 않

다. 이런 이유로 커크 프랭클린, 밥 딜런 등 다수의 가수들이 CCM과 대중가요계를 넘나들고, 대중들도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CCM 관계자들은 이런 점을 언급하며 "한국교회가 CCM을 비롯해 문화영역에 관심을 갖고 투자한다면 미국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결국은 실력... 미래는 밝다

크로스오버의 이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CCM 가수 소향 씨의 엠비씨(MBC) 예능프로그램 '나는가수다'(나가수) 출연은 그 자체로 CCM계에 상당한 의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CCM 가수도 실력만 있으면 대중가요계에서 통할 수 있다는, 하나의 여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거의 모든 CCM 가수들이 소향 씨의 '나가수' 출연을 반기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소향 씨의 시아버지인 김경동 목사는 본지와와의 인터뷰를 통해 "작년부터 '나가수'측으로부터 섭외 요청이 있었지만 거절해 오다 이번에 수락한 것"이라며 "CCM을 비롯해 기독교 음악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그래서 CCM 가수도 실력만 있으면 얼마든지(기독교방송이 아닌) 일반방송 프로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 CCM 가수는 "크로스오버에 음악 외적인 부분이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가수의 실력"이라며 "소향 씨는 '나가수' 출연 이전에도 음악인들 사이에선 그 가창력으로 인해 꽤나 유명했던 가수였다. '나가수'측이 종교적 부담을 안고서도 그를 섭외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그녀의 실력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는 밝다. 김명식 씨는 "대중가요계에 여전히 상업적 원리가 지배적이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다"며 "알고 보면 대중가요계에도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다. '나가수'에 출연해 큰 인기를 모은 김범수, 박정현 씨 등도 크리스천이다. 이들이 점점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실력 있는 CCM 가수들이 대중가요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진영 기자

TOP MEDIA

교회학교 CD제작 성가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3170 E. 11th St., Los Angeles, CA 90023

www.topmediausa.com topmediausa@yahoo.com

베스트 셀러 "영어 훈련소" (김영사) 저자 하득희 교수의 기적의 영어회화

베스트 영어훈련원

- 영어. 말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 회화 3년 과정을 3개월에 완성하는 영어 훈련원
- 오랫동안 영어회화의 전문가들에 의해 입증된 방법을 최로 교육화한 훈련원

제 21기 훈련생 모집

LA 한인타운	플러튼
<p>훈련기간 2012년 7월23일(월)~ 2012년 10월10일(수) 주 3회(월화수반/ 토요반)</p> <p>훈련시간 주중반: 오전 10:00~11:40 저녁 7:30~9:10 토요반: 오전 9:00~1:30</p> <p>무료설명회 2112년 7월23일(월) 오전 10시, 저녁 7시30분</p> <p>훈련장소 LA 베스트 영어 훈련원 3251 W, 6th, #101 LA, CA90020 (6가 + 뉴햄프셔)</p> <p>등록비 580불(일시불, 교재비 포함)</p> <p>접수 설명회 당일</p>	<p>훈련기간 2012년 7월24일(화)~2012년10월13일(토) 주 3회 (월화수반/ 목금토반)</p> <p>훈련시간 월화수: 저녁7:30~9:10 목금토: 오전10:00~11:40</p> <p>무료설명회 2012년 7월21일(토) 오전10시, 저녁7시30분</p> <p>훈련장소 1309 W, Valencia Dr., Fullerton CA92833 (Brookhurst & Euclid 사이)</p> <p>등록비 580불 (일시불, 교재비 포함)</p> <p>접수 설명회 당일</p>

훈련대상

- ▶ 오랫동안 공부했으나 영어회화가 잘 안되는 분
- ▶ 직장생활과 비즈니스 하는데 영어회화가 절실하게 필요한분
- ▶ 다 아는 내용인데 말이 안되는 분
- ▶ 미국사람만 보면 겁이나고 말이 안나오는 분

3단계 활용반

- ▶ 훈련시간: 오후 12:00~1:20
- ▶ 라디오, TV가 전혀 안 들리는분
- ▶ 미국식 발음과 문법에 자신이 없는 분

기적의 영어회화의 특징

LA 제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기 훈련생들 격찬! 또 격찬!

뉴욕 한인들로부터 확실한 검증/뉴욕 한국일보 기사가 직접 참석을 통해 "바로 이것이다" 격찬 타운뉴스 기자 직접 훈련 후 격찬 / LA 다양한 분들 훈련 후 찬사 " 영어 훈련소" <김영사> 세종문화회관에서 출판 강연회 폭발! 1년 해의 연수보다 더 효과적인 곳!

기적의 영어회화의 방법

- ▶ 가장 쉽고 단순하게 영어에 자신감을 갖는다.
- ▶ 중학교 1,2 학년 영어교과서를 읽을 수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
- ▶ 눈으로만 해오던 영어방식을 입체적 방식으로 대전환
- ▶ 분석하지 말것, 단순하게 영어에 자신감을 갖는다.
- ▶ 공부하지 말것, 훈련하라!
- ▶ 책권권을 끝냈다고 방심하지 말것, 그냥 자주 반복하라!

- ▶ 음성학적인 원리를 터득함으로써 발음문제 해결
- ▶ 단순 반복으로 문장이 생각과 동시에 흘러나온다.
- ▶ 시각, 청각, 구강근육운동을 통해 뇌를 입체적으로 자극하는 학습
- ▶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말것, 그냥 자주 반복하라!
- ▶ 뇌리에 영어 코드를 만들어라!
- ▶ 시간을 길게 잡아 지쳐 포기하지 말것,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한국영어훈련소의 폭발적인 인기와 성과, 교육수료자들의 생생한 증언은 하득희저음 영어훈련소(김영사)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www.spiritenglish.com cafe.godpeople.com/spiriteng

베스트 영어훈련원

(213)239-4815
(213)507-0691

31년 전통의
HEALTH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프로모션 변경 세일!

세일기간 :
7월 31일까지

Made in USA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 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프로모션 A

프로모션 B

프로모션 C

오리지널7병+알파0병 =
7병 (210볼)

오리지널4병+알파2병 =
6병 (220볼)

오리지널1병+알파4병 =
5병 (230볼)

100볼 +tax

100볼 +tax

100볼 +tax



신제품

알파

Citric Acid
Alpha

50볼/ea +tax

Kosher Approved
Organic/8온스(226그램)

각종 위장병에
특히 좋은
알파 구연산!!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염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구연산복용체험담

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아왔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 합니다.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똑똑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신장염으로 온몸이 퉁퉁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낮게했다.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옴.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오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로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만성 아토피와 간염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퍼졌음.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낫고 회복.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수많은 체험사례들이 비디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막힌 체험사례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해 주세요.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과대학이나 약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주었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내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용연연구소 수료
융합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 10am-5pm

BOOK



通

신간 도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유기성 지음 | 규장 | 224 페이지 | 25불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저자 유기성 목사의 신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올해 감리교 목사인 저자가 장로교 신학대학원의 학생들에게 개강신앙수련회를 인도한 말씀으로 구성된 것으로 더욱 의미가 크다. 또한 책과 함께 설교 내용 현장 녹음을 담은 MP3 오디오북 CD도 함께 제공된다. 저자의 헌신적인 삶을 책과 함께 오디오북으로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갑각류 크리스천

옥성호 지음 | 국제제자훈련원 | 320 페이지 | 20불

겉껍질은 단단한데 그 속에 든 살은 한없이 나약하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허물어지는 절지동물, 갑각류. 들여다 보면 실속없는 이 갑각류에서, 저자는 오늘날 한국 교회 크리스천의 모습을 떠올린다. 새벽기도, 십일조 등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착하며 겉껍질을 다지지만, 실상 그 속은 기본적인 신학이론도, 확신도 없이 그저 연약한 살로 가득 채워진 크리스천들의 수동적이고 불안한 신앙 행태를 갑각류에 빗대어 파헤친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속살까지 단단해지는 길, 요컨대 끊임없이 공부하고 질문하고 회의하는 등 신앙 진리의 진지한 탐구 자세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길갈

안중혁 지음 | 두란노 | 300 페이지 | 20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다. 역사에 쓰임 받았던 성경의 인물뿐 아니라,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낼 합당한 모델을 각계 각층에서 뽑으셔서 당신을 드러내게 하신다. 저자인 안중혁 교수는 척박한 환경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학문의 일가를 이뤄낸 인물이다. 즉 하나님께서 학문의 영역에서 당신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그를 택하신 것이다. 그 역할에 맞게 그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지역교회에서 수백 명의 청년 유학생들을 말씀으로 직접 가르치며 예수의 제자로 양육했으며, 자마와 코스타 지역 등을 통해 수만 명의 청년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리고 저들을 세상 속 삶의 현장으로 파송했다.



책으로 새로운 통하는 세상



성경의 기록은 성령으로 시작됐다. 성경의 문자가 마음에 박혀 이해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다. 따라서 성경을 보기 위해선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선행해야 할 것이 있다.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 그 의미를 사실 그대로 보고 오늘에 비추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가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흥흥한 바다를 꾸짖으시며, 물 위를 걸으신 현장으로 나를 데려간다.”

이백호 목사는 “(성지순례를 통해) 성경이 허구나 신화가 아닌, 실제적 역사임을 알리고 독자들이 최대한 성지순례에 대해 글과 사진으로 경험할 수 있게 꾸렸다”고 전했다.

이번 답사 여정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단연 나사렛 산이었다고

이 참 잔인했다는 생각에 치가 떨린다”고 했다.

이 책은 ▷성서의 고향을 찾아서 ▷죽자의 길목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리운 갈릴리의 회상 ▷간장이 감도는 예루살렘 등 총 5부로 구성돼 있다. 책은 올 컬러로 제작됐고 성지로 향하는 순례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포켓용으로도 따로 제작했다.

강영석 목사(성화장로교회)는 출판기념회에서 “이 책은 성경을 증거하고, 변호하



이백호 목사, 신간 '순례자의 길' 펴내

이스라엘 답사 체험, 생생한 글과 사진으로 풀어내

찾아서'를 펴냈다.

앞선 책이 바울의 선교지 60여 곳을 조명하고 있다면,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11일 동안 집중적으로 순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발자취를 그대로 담아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부터, 갈릴리·사마리아·거라사·베들레헴·베다니·여리고·골고다 등 성경 속 성지(聖地)로 초대한다. 독자들로 하여금 책에 실린 사진과 설명만 봐도 기독교의 역사를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책에 담긴 사진만 8백여 장이다.

“여기가 갈릴리아, 갈릴리! 어느새 내 곁으로 다

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눅 4:28-30) 이 목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했다고 한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변했을지라도 자연은 변하지 않기에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려 했던 낭떠러지는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그 길은 비교적 완만했다. 바람에 깔려 있는 바위들은 세월의 풍설(風雪)에 시달리며 하얀 대리석으로 변했다. 저자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작정으로 이곳으로 끌고 온 것을 보면 이곳 사람들

고, 나타내는 안내서다. 예수가 역사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책이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언하는 책이다. 예수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발언하는 책이다. 예수님의 발자취와 흔적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산 증거이므로 값지다”고 표현했다.

한편, 이백호 목사는 1971년 한국대학생선교회(CCC) 간사로 헌신하다가 1985년 미국으로 이민 와 뉴욕 동산 장로교회 전도사와 LA 갈보리중앙교



회 담임목사를 역임했다. 1995년 심장개복 수술에 이어 2008년 대장, 소장, 맹장에 퍼진 암을 제거하는 수술 등 여러 차례 병마와 투쟁하면서도 기록에 대한 뜨거운 사명감으로 목숨 건 순례의 길을 이어왔다.

이백호 지음. PCMG. 문의 (310) 329-2761

정하나 기자



당분은 1/2로 낮추고 건강은 2배로 명품저당도 크림꿀

아이다호 크림허니 캘리포니아 딜러십 획득

당뇨 위장병 성인병, 설당대용으로 설당이 몸에 나쁘다는 건 모두 알고계신 사실 천혜의 청정지역 아이다호 고산지 클로버와 알팔파에서 추출한 아생건강꿀

Cox's Honey
California Exclusive Distributor
LA, OC지역 무료배달

귀국선물로 최고의 선물을

\$50 5LBS

도·소매 사업자와 세일즈 하실분 모집

소자본이로

HYUNDAE BIDET™ 현대비데 미주총판
Non Electric, Electric & Hybrid Type

현대비데 (냉,온수)와 설치비+Tax 포함 \$119.99

1년 워런티

- 비데기능은 오직 세정
- 물탱크 없이 직수로 사용
- 위생적인 비데
- 한국제품의 우수성

- ① 여성전용 노즐과 노즐 자동세척기능
- ②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반 영구적 사용
- ③ 오도염, 방광염, 냉대하 및 자궁질환, 향문 질환 완화와 예방

타주 및 지역 대리점 모집

썩담배, 금연초~!! 100% 니코틴 프리

“기관지에 썩뎠 효과”

아직도 담배때문에 걱정하신가요?
100% 썩을 원료로 만들어 몸에 좋은 담배 대용품!
금연과 더불어 기관지 특성제거와 썩뎠효과까지!
LA, OC지역 무료배달

10갑/1보루 50% Sale \$30

고수익 창출

슈퍼파워 남자의 힘! 여자의 행복!

• 발기부전, 조루증, 전립선
• 신속하고 5일 간의 지속적인 효능
• 복용 후 1시간 이내 100% 효과
• All Natural
• 근본적 성기능 개선
• 1회 1일 만족한 효과

LA, OC지역 무료배달(2box 이상)
도매 하실 분과 OEM 생산 문의 213-505-3355

100% Made in USA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역사(History)는 예수님 그분의 이야기(History)이다. 이 역사의 중심되신 예수님은 신구약 성경의 공통 주인공이시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한다.

이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며, 구원의 소식이다. 이 소식은 사람의 생사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또 필사하여 전파했다.

그 결과 지금 남아있는 신약성경만 하더라도 수만 종에 이르는 사본들이

보존돼 있다. 그러나 신약성경의 모든 책들은 예수님을 빼놓지 않고 있다. 주인공 없는 이야기는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마태, 마가, 누가, 및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어록"(語錄)이다. 가장 유명한 분이 하신 말씀을 잊지 않도록 적어 놓은 책이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믿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을 기술한 책이다.

수많은 서신들은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면서, 아울러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계시록은 묵시문학의 장르로 예수님을 그리고, 히브리서는 제사장과 제사의 예식을 가지고 그

리스도의 사역을 재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공통된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핵심으로 삼고 전파하고 있다. 즉 다양한 기록을 통해 복음을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4복음서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제시한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한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한다. 복음의 본질은 같으나 이처럼 다르게 표현되는 이유는 복음서 기록자들이 자신의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적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의

풍요함과 다양함을 자신의 표현의 그릇에 담아서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나온 복음서이다. 그 주제도 가장 파격적이다. 요한의 의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도 나오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심을 여러 곳에서 증거한다. 그중 대표적인 표현이 "나는...이다"(I Am)라는 의미의 "에고 에이미"이다. 이 표현은 히브리 명칭 "여호와"(YHWH)의 헬라어 번역이다. 이 표현은 "내가 바로 여호와"라는 직접적인 그리스도의 선포인데, 요한복음에서 일곱 번이나 반복된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진짜 예수님 생각이 나십니까?



정우성 목사
남가주광영교회

"주님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생각하고 늘 깨어 있으라고 여러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도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잘못되지 않으려면 생각이나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잠들거나 혼몽한 상태에 빠지면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주님을 생각한다는 말은 깨어 있다는 말이며, 깨어 있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잠자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 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눅21:36) 깨어 있다는 말은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한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처해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 주리라"(계22:12) 장차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가정, 일터, 교회 등에서 섬기고 일한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멋진 것처럼 당신의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쁜 하루를 지내다 보면 나 아닌 누군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뜻대로, 주님의 형상 닮은 생활을 하도록 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눈 앞에 보이는 직장 상사, 같이 일하는 직원, 가족, 이웃을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화났나? 환한 얼굴을 보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왜 저렇게 짜증을 낼까?"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지냅니다. 그 많은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 따로, 생활 따로, 말씀 따로, 직장 따로, 기도 따로, 가정 따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생활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좋은 신앙생활 습관이 안 된 것이지요.

그러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사랑의 날개 아래 돌보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실패의 원인을 찾으라



남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얼마 전까지 애플사를 이끌었던 스티브 잡스는 IT 산업을 혁명처럼 업그레이드 시킨 천재적인 사람이었다. 그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상품들은 내놓기가 무섭게 전 세계 사람들을 열광시켰고 그가 생각한 프로젝트마다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꿈과 가능성을 제시하며 놀라운 혁신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늘 성공만 했던 인생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에게는 많은 인생의 굴곡과 실패가 있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가 창업했던 자신의 회사에서 쫓겨나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비참함과 아픔을 경험해야 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여기에서 주저앉지 않고 세계 최초로 컴퓨터 애니메이션 장면 영화인 <토이 스토리>를 성공시킨 후, 자신의 회사로 돌아와 애플의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게 된다. 이때 스티브 잡스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만일에 내가 애플에서 해고되지 않았다면, 애플을 다시 부활시킬 수도 없었을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전세계의 IT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처한 실패의 현장에서 그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않고 새로운 도약과 회복의 기회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실패는 새로운 승리를 위한 첫 걸음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것은 실패의

현장에서 왜 내가 실패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다.

세계적인 성공학 연구자인 나폴레옹 힐은 한평생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많은 책을 저술한 사람이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 『Think and Grow Rich』에서 그는 성공을 위해서는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만일 누군가가 실패의 현장에 있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내가 뚜렷한 목적을 상실한 것은 아닌가?' 혹은 '수양과 훈련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같은 질문들이다. 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일을 미루는 게으름이나 무절제한 욕망은 없는가?', '확고한 결단력이나 집중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같은 여러가지 원인들을 스스로에게 물어 보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나갈 때만 자신의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않고 새로운 회복과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우리가 실패할 때에는 반드시 실패의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잘 파악하고 극복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성도의 삶이라고 해서 늘 승리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한다. 인생에는 오르막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오르막길을 따라 정상에 올라갔다면 다시금 내리막길로 내려와야 하는 때가 온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혹은 나의 욕망과 무절제한 때문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은총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의 자세를 정직하게 되돌아 보아야 한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격과 유혹 앞에 확고히 마음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살펴 보아야 한다.

이럴 때, 성도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실패는 새로운 승리를 향한 발판이 될 것이다.

사랑은 돌봄



정인량 목사
워싱턴영광장로교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음을 이룬 자를 발견하고 측은한 마음을 품었다. 우선 급한대로 응급처치를 하고 가까운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 자신 역시 여행 중에 있더라면 여관 주인에게 돈을 건네며 뒷일을 부탁한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부류는 자신만을 돌아보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이웃을 제 자신처럼 돌아보는 사람들이다. 자신만을 애지중지 돌보는 사람들은 사리분별이 분명한 사람들일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들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킨다. 제대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하지만 그들은 실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그 행동은 이기주의 안에 머문다. 이들은 결국 삶의 종장에서 이웃들로부터 따뜻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쓸쓸한 최후를 맞이한다. 선배는 반드시 그 후배들을 돌봐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나 몰라라 하면서 자신의 유익과 영달을 위해서 후배들을 이용하는 자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한 것이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돌봄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돌보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몸을 돌려서 그 대상을 봐 주는 것이다. 돌봄의 미덕은 결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완벽한 상황이나 조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갈 길이 바쁜 비즈니스맨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시간을 희생해서 이웃을 돌보았다.

사랑은 돌봄이다. 필요에 처한 사람을 돌아보고 그 뒤를 기꺼이 돌봐주는 것이 사랑이다. 세상은 점점 더 많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돌아야 할 사람들이 늘어나는 까닭이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업,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팩스 : (718) 228-950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미주대한예수교장로회 한미노회

목사안수 공고



임직자 : Kevin Lee(이명동)
일시 : 7월 24일 오전 9시
장소 : 11511 Wilson ST, Mission, BC, Canada
갈상자장로교회
TEL : 1-604-318-3594.
안수위원 : 신태환, 김명성, 조성근, 조남두, 유익진

선교의 교두보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언젠가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미국 사회에 널리 퍼졌던 선교의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18-19세기 미국 교회에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선교의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다. 약간의 신앙만 있으면 누구든지 선교에 참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고 한다. 그 특이한 미국 교회의 선교 열정이 수많은 선교사들을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힘이 되었고 선교의 세기를 열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미국이 건국 때부터 기독교적인 영향력이 큰 나라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 세계를 변화시킬 정도의 선교 역량을 품게 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의 미국이야 단연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자 부국이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유럽열강에 비하면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이민자들의 나라에 불과했다. 그런 미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던 미국의 선교가 20세기와 21세기 들어서면서 조금씩 식어가는 반면 놀랍게도 미국이 복음을 전한 땅 끝의 작은 나라, 한국의 백성들에게 그 선교의 불길이 옮겨 붙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대 한국의 크리스천들이라

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슴에 선교의 열정이 불타고 있다. 그 선교의 열정은 젊은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같다. 우리 장모님은 딸네 집을 방문한 것 빼고는 외국을 가본 일이 없고 해외여행에 관심도 없는 분이시다. 그런 장모님조차 꼬깃꼬깃 모아두었던 통장을 털어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라에 가서 하다 못해 땅이라도 밟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모습은 놀라기 그지없다. 고맙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가슴에 세계선교의 열정을 주심과 동시에 역사상 보기 드문 경제발전을 이루어 그 선교의 열정을 뒷받침할 수 있게 해 주셨다. 이 모든 일이 어찌 우연이랴! 이민교회는 이 시대 우리 민

족의 선교열정의 선봉에 서 있는 교회들이다. 이민교회는 철의 장막이 쳐 있어 한국 교회가 미처 들어갈 수 없었던 시기에 그 선교지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한국 교회가 중국에 들어갈 수 없었을 때 이민교회는 이미 중국의 조선족 교회와 더불어 선교를 시작했고, 한국 교회가 러시아에 들어가지 못하던 시기 이미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선교를 시작했다. 모두가 다 미국시민권을 가진 이민교회 성도들이기에 할 수 있었던 일이다. 그 후 닫혔던 문이 열리면서 한국 교회가 몰릴듯 이런 선교지로 진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민교회의 사명과 역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더러는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좋은 직업과 직장을 포기하고 떠나기도 하고 더러는 은퇴 후 이제는 편히 살만한 연세에 가장 험한 지역의 선교를 자원하기도 한다. 세상의 이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다. 하나같이 귀한 교회의 일꾼인 이들을 떠나보내는 것은 목회자로서도 섭섭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누군들 편안한 삶을 마다하겠는가? 그러나 그 어떤 안락함의 유혹으로도 꺾이지 않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열정을 그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

산세베리아를 닮은 사람들



김세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미국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잡목 중의 하나가 산세베리아(sansevieria)입니다. 화분에 심겨져서 흩디포나 꽃 가게 입구에 흔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잡목이라고 보기에는 나무같은 구석이 하나도 없고, 잡풀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크고 역센 것이 뻗뻗하게 지 않습니다. 마치 가지없는 용살란 같습니다. 크고 웅장해서 제법 있어 보면서도 값이 저렴해서 체면치레 선물로 그만입니다. 하지만 꽃을 보기가 어렵고, 잎사귀들이 항상 멀뚱멀뚱 같이 하늘로 뻗어 있어서 실속은 없어 보입니다. 산세베리아는 꽃이 잘 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한번도 꽃을 본 적이 없어서 원래 꽃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야 비로소 산세베리아도 꽃이 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길쭉길쭉 뻗은 실타래 같은 하얀 꽃들이 만개한 것을 볼 때면 묘한 감동을 느낍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숨기고 있었구나!" 향기도 강렬해서 그동안 숨겨 두었던 꽃내음이 방안 한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산세베리아의 꽃을 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좀처럼 꽃대를 내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

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산세베리아의 꽃을 보게 되면 행운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자연히 산세베리아의 꽃말은 행운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멋진 꽃을 피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센 줄기와 잎사귀 틈바구니 속에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 살아가는 산세베리아는 언젠가 한줄기 굵은 느낌을 선사합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자신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꼭 산세베리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꽃피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푸르게 키워줍니다. 성

경에는 산세베리아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용맹과 지략을 겸비한 요나단은 자신의 벗 다윗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자신의 꿈과 야망을 조용히 접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실래는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군사 쿠데타 때문에 마하나임으로 피신하여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지성으로 그를 섬기고 돌보아 줍니다. 반란이 평정되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환궁할 때, 제일 먼저 쟁긴 사람은 물론이요 바실래입니다. 그러나 바실래는 젊고 유능한 젊은이였던 김함의 미래를 열어 주려고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호의 호식하며 남은 생애를 멋지게 꽃피워 볼 수도 있었지만, 꿈많은 젊은이를 위해 자신의 길을 양보한 것입니다. 바울의 길을 열어준 바나바, 정치 라이벌인 여호수아를 섬긴 갈렙, 그리고 모세를 빛나는 지도자로 세웠던 아론과 훌!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화려한 꽃을 딱딱한 잎에 묻어버린 산세베리아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들이 숨겨져 있기에 책갈피를 넘길 때마다 강렬한 산세베리아 향이 묻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따뜻합니다.

社說

한인교회의 정치참여 고무적이다

요즘 한인들의 정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워싱턴DC에서 한인들이 중심이 되어 개최한 북한인권 집회 "Shout for Freedom"에는 무려 9명의 상하원 의원이 당파를 무릅쓰고 참석했다. 이 집회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하워드 버먼 하원의원이 한미연합회를 전격 방문해 탈북고아입양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동성애 반대운동을 하며 주류사회 정치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깨달은 한인들은 이제 동성애 반대서명의 여세를 몰아 유권자 등록을 통한 정치인 압박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민역사 100년을 넘어서며 많은 한인 기관과 단체가 정치 참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한인 정치인 배출, 주류사회 정치인 후원 및 모금 활동 등에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미국 정치의 벽이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고충이다. 그런데 최근의 사례들은 한인들이 어느덧 주류사회에 큰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해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리고 이런 큰

성장세에 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단순히 머리가 많아서가 아니다. 교회 울타리를 넘지 못하던 한인 교회들이 '타인을 위한 헌신'에 눈을 뜬 결과다. 워싱턴DC의 집회는 한인교회들의 연합체인 KCC가 주최했고 하워드 버먼 의원 초청 간담회에는 한글교회 노진준 목사를 비롯해 예브리데이교회, 웨스트힐장로교회, 나성영락교회 등에서 목회자들이 참석했다. 교회가 막강한 영적, 수적 힘을 이기적으로만 사용할 때 사회의 지탄과 비난을 받고 실패를 겪었지만 자신이 아닌 '북한 동포'와 같은 타인을 위해 건강하게 사용할 때 주류사회 정치에 움직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한인사회가 성장함에 따라 한인 교회 앞에는 더욱 많은 정치적 과제가 놓여질 것이다. 교회가 정치에 포함된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영적 주도권을 잃는다면 곧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무력한 기독교로 전락할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해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리고 이런 큰

신천지 문제 대책 요구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인 오픈 바이블 세미나를 수정교회에서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교주 이만희 씨를 구세주 혹은 보혜사로 칭하며 14만4천명의 신도를 모으면 그들은 육체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생할 수 있다고 믿는다. 신천지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신학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신학이 없는 영터리 성경해석이다. 백석대 권호덕 박사는 "그(이만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 너무 난해하고 자의적이며 규칙도 없어 보인다. 오직 자신의 관심거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관계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성경구절을 끌어들이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또다른 문제는 이 신천지가 소위 추수꾼들을 건강한 교회들에 잠입시켜, 작게는 성도를 이탈시키거나 크게는 교회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목회자들을 '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에 주도적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뉘어진 교회의 일부분을 '접수'하

는 비열한 방법으로 한국과 미국의 여러 교회에 큰 피해를 준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암약하던 신천지가 미국에서는 대놓고 성경 세미나를 연다고 한다. 간헐적으로 사회단체로 위장해 얼굴을 드러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행사는 유례없다. 현재 교세가 8만5천명 정도로 집계되는 그들은 올해 안에 14만4천명 신도를 채운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 그동안 추수꾼을 이용해 매년 1만명 가까이 교세를 확장해 왔지만 이런 방법으로 14만4천명을 채우기는 역부족이라 판단한 듯 싶다. 현재 신천지의 세미나는 미국 유명 크리스천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광고가 나가고 있다. 신천지의 정체를 잘 모르는 미국인들 혹은 한인 2세대들이 신천지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인교회와 성도들에게 경각심과 함께 책임감있는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과병원 | 원장 류재규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 경산한의과대학교 교수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물 2층) LA, CA 90006

CABBAGE

health & life



병을 치료하는 밥상 오늘 식탁은 '양배추'로 다스려라

달다름하고 아삭한 양배추. 영어로는 '캐비지(Cabbage)'다. 어원은 '머리(Head)'라는 뜻으로 라틴어에서 비롯됐다. 부풀어 오른 생김새가 사람의 머리 모양을 닮아 지어진 이름이다. 우리네 밥상에 올라온 지는 어언 25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역사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수확량이 많아 전쟁 때면 전시 작물로 급부상했다. 로마의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도 양배추 마니아였다. 달마티아 지방에서 양배추를 기르겠다고 황제 자리에서 은퇴했을 정도니 말 다 했다. 만약에 그가 양배추에 빠져 제위에서 물러나지 않았더라면... 이후 일어난 내란 발생 시기가 늦어져 로마 제국이 더 오래 존속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최근엔 웰빙 바람을 타고 다이어터(Dieter,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란 뜻)들의 식탁에 단골메뉴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일단 칼로리가 낮고,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니 예나 지금이나 '다이어트' 하면 이것부터 찾는다. 고대 수학자 피타고라스 역시 양배추 예찬론자였다. 채식주의자였던 피타고라스는 "양배추는 인간을 밝고 원기있게 해 주며 마음을 가라 앉혀주는 야채"라고 했다. 중국의 고대 문헌 '본초습유(本草拾遺)'에도 "양배추는 골수를 보(補)하고 근골을 튼튼히 한다"고 명시돼 있다. 몸에 좋기로 따지면 그 효능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오죽하면 '가난한 자들의 의사'라는 별칭이 붙었겠는가. 요거 하나면 병원 갈 일이 없다고 하니, 요즘 같은 불경기엔 딱이다.

양배추엔 체내의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비타민 U가 많아 위궤양 환자들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다. 양배추는 우유만큼 체내에 흡수가 잘 되기 때문

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더부룩하지 않다. 비타민 K도 풍부하다. 골다공증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좋다. 양배추의 녹색 부분은 특히 비타민 C 함유량이 많다. 토마토의 두 배다. 양배추 잎 한 장이면 1일 권장량인 50mg을 채운다. 생으로 먹거나 갈아서 즙으로 먹어도 목구멍에 잘 넘어간다. 푹푹 찌는 더위에 지쳐 입맛 없을 때, 살짝 찌기만 해서 쌈 싸 먹으면 밥 한 공기엔 금세 푹딱이다. 살강살강 씹히는 양배추쌈 하나면 다른 반찬이 필요없다. 그래, 오늘 점심은 이걸로 해야겠다. 여기서 잠깐. 양배추쌈 레시피를 알아보자.

정한나 기자



양배추 찌는 법

양배추는 단단한 밑동을 칼로 도려낸 후 밑동 부분에 끓는 물을 부어 잠시 둔다. 이렇게 하면 1장씩 뿔 때 곁이 찢어지지 않고 하나씩 잘 뜯어진다. 1장씩 뿔 양배추를 잘 씻은 후 면보름 간 찜통에 김이 오르면 7분 정도 살강하게 찌서 채반에 건져놓는다. 너무 오래 찌면 흐물흐물해져서 맛이 없다.

TIP 한입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하나씩 찌 때는 너무 굵은 줄기 부분은 칼로 살짝 잘라낸 후 물기를 없애고 밥과 양념장 등을 넣어 초밥 모양처럼 싸면 된다.

이오렉스

21세기형 이온화식 수처리기

성능 세계 1위!

살아숨쉬는 물 실현!!

한국, 미국, 중국 특허 · 미국 FDA 인증 · 러시아 GOST 인증 · 러시아 위생 인증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 KOTRA 보종 브랜드 ·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한국주력광산(사) 신기술 인정 · 중소기업청 성능인정 · 벤처기업 인증

무동력

무화학
약품

무A/S

한번 설치로 반영구적 사용

탄생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05년의 국책 과제로 300여 년된 상트페테르부르크시의 배관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 이스라엘, 독일, 영국 등 각국의 수처리기를 1차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 결과 IOREX 제품만 선택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후 18개월에 걸쳐서 진행된 러시아 정부기관과 해군연구소에서 2차 정밀 테스트도 통과해 제품의 성능이 확인됐다. 이로써 러시아 정부가 인정하는 GOST(품질, 위생)인증을 획득으로 전세계에 확산되어 수출산업의 금자탑을 이루게 되었다.

원리

IOREX의 생성 물질인 난류제트 형성과 갈바닉 전류의 의한 마이크로 나노버블에 의하여 물이 IOREX를 통과 할때 접촉면과의 마찰로 인해 정전기가 발생되며 정전기를 흡수하여 전하가 높아지면 바깥쪽의 핵전자를 방출하면서 하전을 띠게 된다. 따라서 전하의 이동에 의한 강한 장전기장이 형성되어 물이 통과하는 순간 이온 활성수가 된다.

효과

- 배관문제 해결 - 배관 내부의 녹, 스케일, 슬라임 제거 및 형성 억제로 수명연장으로 경제적이다.
- 열효율 증가 - 배관내의 스케일이 점차적으로 사라짐에 따른 열효율 증가로 에너지가 절감된다..
- 살균기능 - 물속의 일반세균 및 대장균 살균.
- 연수기능 - 센물(경수)의 구성 이온들과 결합. 미세하게 분해하여 이온수로 전환.
- 웰빙기능 - 이온화 활성수로 체내에 흡수가 용이하여 동, 식물의 건강과 성장 촉진이 활발하다. 각질제거, 여드름, 무좀, 주부습진, 마른버짐 등 피부질환 개선효과가 좋다.

지리산 생수 공장

14811 Spring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JAMES SONG Tel: (562) 405-9987 www.iorex.co.kr

GS칼텍스 인천 제유소

CULTURE N LIFE

라구나비치, 삶 속에 예술이 있다
남가주 3대 감성 축제의 열기 뜨겁게 달아올라
몸과 마음의 피로 씻어주는 미학의 세계로 빠져들다

해변보다

'예술'이다



깨끗한 백사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림 같은 곳. 연인들의 데이트 필수 코스. 라구나비치를 수식하는 단어들이다. 9.1 스케어마일의 대지에 크고 작은 만과 해변을 따라 1백여개 갤러리가 운집해 있는 이곳은 해마다 이맘때면 예술 축제로 열기가 뜨겁다. 쏘더스트 아트 페스티벌(Sawdust Art Festival)·아트 어 페어(Art A Fair)·페스티벌 오브 아츠(Festival of Arts) 이 3대 축제는 남가주를 넘어 미국 전역에서도 가볼 만한 축제로 손꼽힌다. 올 여름은 온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바닷가보다도 예술가들의 투혼이 서린 감성 세계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 찬란한 햇살과 푸르른 바닷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구릿빛 피부의 아름다운 여인네들까지 화폭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캘리포니아의 내로라 하는 예술가들이 총집합 해 해변을 달궂어인지 유난히 하늘이 푸르르다. 로맨틱하면서도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지중해풍 해변과 더불어 찾는 이들의 몸과

마음의 피로를 씻어 준다.
▶쏘더스트 아트 페스티벌=남가주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 축제로 올해 46회째를 맞이했다. 유칼립투스 나무들이 우거진 숲 속, 3에이커 규모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쏘더스트 축제장은 제도권을 거부한 2백여 지역 예술가들의 작가적 투혼이 서려 있다. 그림·도자기·조각·사진·귀금속 등 10가지 이상 분야의 예술품을 만나볼 수 있다. 온 가족이 즐기면서 직접 예술품 창작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공예 시범 프로그램들도 가득하다. 오는 9월 2일까지 계속된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개장한다. 입장료는 성인 7.75불, 65세 이상 6.25불, 6~12세 3.25불, 5세 이하는 무료다. 주소는 935 Laguna Canyon Rd. Laguna Beach/문의 (949) 494-3030/www.sawdustartfestival.org

▶아트 어 페어=1967년 이래 매년 여름마다 지역

예술인들을 넘어 세계 각국의 예술인이 몰려드는 국제공인 예술경연대회다. 125명의 예술가들의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도자기, 사진, 보석, 섬유공예, 목공예 등 다양한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다. 게다가 9월 초까지 재즈, 클래식, 블루스, 팝 등 다양한 라이브 음악 공연을 비롯한 각종 퍼포먼스가 펼쳐져 관람객들을 즐겁게 해 준다. 개관 시간은 일~목요일 오전 10시~오후 9시, 금~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0시. 입장료는 성인 7불, 시니어·군인·20인 이상 그룹은 4불이다. 주소는 777 Laguna Canyon Rd. Laguna Beach/문의 (949) 494-4515/www.art-a-fair.com

▶페스티벌 오브 아츠=80돌을 맞은 최장수 야외 예술 축제다. 전국 10대 예술 축제 중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권위를 자랑한다. 140여명의 남가주 아티스트들의 순수 창작 미술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오후 8시 30분 야외 극장에서 열리는 '패전트 오브 더 마스터스(Paegant of the Masters)'가 압권이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이 행사는 실제 배우들이 고전과 현대예술작품을 전문 오케스트라, 나레이션, 조명까지 곁들여 '살아 있는 그림'으로 재현해 낸다. 올해 테마는 '더 지니어스(The Genius)'이며, 8월 말까지 계속된다. 티켓은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 '페스티벌 오브 아츠' 입장료는 평일 성인 7불(주말 10불), 시니어·학생 4불(주말 6불), 12세 이하 및 군인·라구나비치 거주자는 무료다. 주소는 650 Laguna Canyon Rd. Laguna Beach/문의 (949) 494-1145/www.foapom.com

정한나 기자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동의 당뇨환

동의 당뇨환을 복용하는 순간부터 그 효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징

1. 100% 순수 한약재로 되었음
2. 식사가 어느정도 완화됩니다.
3. 피가 청결해져서 최대한의 합병이 억제됨
4. 식후에만 삼회 복용합니다.
5. 당 수치가 조절됨에 따라 동의당뇨환의 복용량을 줄여가다가 끊을 수 있습니다.

실로암 한의원 2621 W. Olympic Bl #202 LA CA 90006 213-427-0036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in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사고 팔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자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감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마켓용 Gondolas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베니스 한의원

특별진료과목 [감기/비염/위장병] 예방 및 근본치료 원칙

- 각종 위장병, 만성변비, 방광염, 잦은소변
- 중풍, 반신마비, 대상포진, 안면마비, 오십견
- 신장결석, 담결석 (전통비방특수한약)

침/전침/화침/불부황/고약/보약/공진단/소화환

유학생 여행차 교통사고 건강보험상담 213.271.7002
2270 W. Venice Blvd LA, CA, 90006
웹사이트 베니스 사거리 테크노 링크 주차장 WWW.LAHERB.COM

황씨 냉동, 에어컨, 히팅

신속, 정확, 저렴 전지역 가능, 24시간 대기

사업용: 마켓 식당 리커, 냉동냉장, 웨어하우스 교회 선풍설 A/C, Walk-in 냉장, 냉동설치 및 수리, Ice Cream 머신수리
가정용: LG벽걸이 A/C설치 수리, 하우스 아파트 선풍설 A/C 냉장, 설치 및 수리

(213)220-7131 (626)807-8799

이민국 및 법원 서류 일체

(최고 저렴한 가격)

- ▶ 종교비자 (R-1 & I-360)전문
- ▶ 가족 및 결혼 영주권, 제반 서류 일체
- ▶ 비영리단체 (교회, 선교단체)

한미 기독교 봉사회 Tel. (213) 305-2344
1300 W. Olympic Blvd., #202, LA, CA

골드핑거 직접재단 직접재봉

양복점

삼성이 만든 명품 양복지 골든텍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양복점에서 수제작양복을 입어보세요. 귀하의 품위가 나타납니다.

(213)386-5858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동산한의원 3주년

50%할인 당뇨/파킨슨/호흡기/알러지
피부병/ 불임증/ 난치병

세명의 한의사들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13-382-0067 2621 W. Olympic Blvd #20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 ✓ 트랜스미션
- ✓ 타이밍벨트
- ✓ 브레이크
- ✓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인디안 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체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 (213) 736-6625
www.indianaloevera.com

세계일류 상품 인증 획득 미주총판 www.Caidrox.com

2011 大賞

*Black Box(차량용 영상장치)란?
주행이나 주차시 예외 없이 모든 시간 사고를 영상으로 속도, 위치, 시간, 음성을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위기의 순간 **유일한 목격자**
Black Box LA, INC. T.562-495-9987

Kate Cho 헤어디자이너 케이트 조

Man's cut \$10.00 Women's cut \$20.00

영양염, 펄빙염, 아재염 \$50.00 하이라이트, 코팅, 염색 \$50.00

매직 스트레이트 펄 \$80.00

반드시/꼭 예약 필수!! 213.505.5756
432 S. Western #101, Los Angeles, CA, 90004

sasafschool.blogspot.com

말고 말기세요. 아이들의 성적이 달라집니다 K~6

Math English ESL Writing Bookclub

APPLE TREE ACADEMY

Pick up, 건강한 식안과 함께 학교 공부 준비를 100% 도와 드립니다.

213.507.5045

가디언 컴퓨터 수리

213-663-8007
213-536-4696

317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비베큐용)
- 각종 Tea (커피, 통글레, 홍차, 녹차 등)

☎ 818-306-7652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햇빛차단 Low-E3

→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그레이스 최 최추신경 한방병원

www.herbsabu.com

방울먹으면서도 식욕 계속 있습니다.

내장비만 & 다이어트

현대인의 고지방인 비만 몸 속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배고픔이 없고 소화량 또한 없이 위장이 좋아 소화활동도 건강해집니다.

금연클리닉 스페셜 \$200 (금을 때까지 치료)

양반/한반 두가지 치료를 병행하여 뇌가 자연스럽게 연동판을 생성하게 하여 니코틴을 찾는 것을 막음으로 담배를 끊게 해드립니다.

726 S. Wilton Pl. #2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1-8228

귀국 자동차운송 **업계최저 \$950**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 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동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 (213) 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홈 페이지 제작

제작비용 걱정, 이제 그만! \$499

저렴하고 빠르게 제작

풍부한 제작경험을 토대로 정성껏 제작해드립니다.

제작문의 213.587.3498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과 외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복음과 의술 통해 영혼과 생명 살리는 이민희 한의사

의료선교 통해 하나님의 섭리 깨달아

만성피로, 갑상선질환, 통증치료, 내과질환 비롯해 성형미용 침술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가운데 자신의 의지로 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어 주듯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다고 고백하는 이민희 원장. 그는 어릴 때 앓은 소아마비로 인해 다리가 약간 불편하다.



이민희 원장이 침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신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3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는데 치료를 받지 못해 그때 이후로 다리가 불편합니다. 어릴 때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신앙이 없었던 어머니께서는 제가 신앙으로 이것을 극복하길 원하셨는지 성당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곳에서 막연히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신앙도 없고, '예수쟁이'라며 크리스천을 천대하던 이모님께서 갑자기 복음을 받아들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변화된 이모님께서는 먼저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저를 오산리기도원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전에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알아보실까?' 생각해 왔는데 기도원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의사가 된 이유와 미국에 오신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사춘 당숙이 한의사를 하면서 저에게 한의사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의사라는 직업이 안정적이고, 아픈 사람을 도와 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의사 공부하기 위해 미국에 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던 이모님의 막내 사위가 한국에 왔을 때 그와 대화를 나누며 미국 유학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다른 한의원과 차별성은 무엇인가요?

저는 1989년부터 사우스베일로데

학에서 15년동안 침구학, 한방내과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현재는 만성피로증후군, 갑상선질환, 통증치료, 내과질환 등을 다루며 성형미용을 위한 침술도 제공합니다.

-원장님께서 사역해 오신 의료선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년에 3-4회 의료선교를 다니며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시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의술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몇백명씩 몰려온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의료선교의 기간이 좋습니다. 그후로 여러 번 멕시코에 다녔고 샘복지재단(대표 박세록 장로)의 LA 지부장으로 지내면서 단둥에 있는 병원에 1년에 3회에서 4회 정도 다녀왔습니다. 이중 1년에 1번이나 2번은 북한에 점령해 있는 진료소에도 다녀왔습니다.

그중 세번째 북한에 방문했을 때는 기아를 치료할 목적으로 만든 '사랑의 영양버터' 공장 준공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의료진을 구성해 황해도에 가서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북한은 황생제 하나가 없어서 사람이 죽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황해도 주민들을 의료로 섬길 수 있던 것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합니다. 그들에게 침을 놓으며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네 당신의 손을 잡고 기도해도 되겠나?' 했더니 그렇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한 것이 저에게는 소중한 기억입니다. 북한에서 이런 행동은 굉장한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선교 때 기억에 남는 환자나 선

교지가 있다면요?

맨 처음 중국에 의료선교를 위해 간 곳은 광개토태왕비가 있는 '지안'이라는 곳입니다. 짧은 시간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진료하는데 정신없이 진료했습니다. 접수받던 권사님께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들것에 실려서 왔던 사람이 침을 맞고 집으로 걸어가지 주변 사람에게 알려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왔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또 '장백'에 의료선교를 갔을 때 날 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던 20살 여성을 치료하고 다음날 급하게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다시 만났는데 그때 치료를 받고 난 후 왼쪽 귀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의료선교는 잠깐 진료하고 끝나는데 이렇게 해서 교회에 도움이 될까 항상 궁금했는데 평상시에는 기적을 일으키기 힘들지만, 선교지에서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비전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계획을 잡아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하나의 커튼을 열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를 한의사의 길로 인도해 주신 목적이 있을 테니 최대한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으로 순종해서 쓰임 받는 것이 소망입니다.

주소: 3000 W. Olympic Blvd. #303 Los Angeles, CA90006 전화: 213-385-6688 진료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10시~오후6시 / 토요일: 오전10시~오후2시 빅터 박 기자

차세대 무역인 경쟁력 강화 돕는다

OKTA 주최, 차세대 무역스쿨 7월 20일부터 3일간 열려



지난해 열린 차세대 무역스쿨 참가자들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월드OKTA)가 주최하는 '차세대 무역스쿨'이 오는 20일부터 3일에 걸쳐 옥스포드 팰레스 호텔에서 개강한다.

미주한인 무역인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례행사인 차세대 무역스쿨은 이날 오전 9시 30분에 개막식을 열고 남가주 지역의 1.5~2세 차세대 무역인들과 선배 경제인들의 네트워킹의 시간을 마련한다.

이번 행사에는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의원, 미셸 박스틸 주 조세행정국 부위원장, 강석희 어바인 시장, BBCN 은행 앨빈 광 회장,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아들인 탈프 안 씨 등이 강사로 설 예정이다.

주최측은 이번 행사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계법령 및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또 2박 3일에 걸쳐 합숙을 하는 대회 특성상 그룹별 프로젝트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가 연령은 35세 이하로 제한됐다.

한편, OKTA LA는 13일부터 KOTRA 빌딩 내 위치한 사무실(4801 Wilshire Blvd. #104C, LA)에서 '차세대 무역스쿨' 현장 접수 및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문의) www.oktala.net/ 323-939-6582 한주연 기자

8월 4일 무료 시민권 신청 워크숍



민족학교 주최로 무료 시민권 신청 워크숍이 개최된다.

민족학교(사무국장 윤대중)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오렌지 카운티 한인들을 위한 무료 시민권 신청 워크숍 개최를 알렸다. 무료 시민권 워크숍은 8월 4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2시까지 Garden Grove United Methodist Church(12741 Main St. Garden Grove) 강당에서 개최되며,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권 신청서 작성은 물론 시민권 사진 촬영, 이민변호사 상담 등도 무료로 제공한다.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민족학교의 윤희주 프로그램 디렉터는 "한인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시민권 신청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이 때문에 특별히 오렌지 카운티의 한인들을 위해 무료 시민권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하며, "무료로 시민권 신청에 관한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시민권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한인들은 이

번 기회에 도움을 받을 것"을 권했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3년)이 지났어야 하고, 최근 5년간 2년 6개월(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1년 6개월) 이상 실제 미국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기본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무료 시민권 신청 워크숍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민족학교(323-937-3718)로 연락하면 예약과 동시에 구비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민족학교는 "뉴 아메리칸을 위한 전국 파트너십" 및 "아시아 아메리칸 시민권 네트워크" 등 전국의 이민자 단체들과의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

한주연 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iTalkBB featuring a 'Home in Korea!' theme. It promotes a global Plus Plan for \$9.99/month and a 'Golden Medal' promotion for the Korean national football team. Includes contact info: 1.800.872.2902 and www.Korea.iTalkBB.com.

이탈리아 대표팀이 금메달을 딸때마다 \$1 크레딧이 팡팡! 15개면 \$15 크레딧! 마이코리아번호*** 무료 부가서비스...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축하합니다.

미국 전체 에쿠스 판매 1위
미국에서 가장 큰 단일 현대 딜러 1위
2012년 서부지역 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1위

돈 한푼 없이 첫달지 할부금도 안내고 디파짓없이
 오셔서 마음에 드시는 차와 선물, 혜택을 **그냥 드립니다.**
틈뚱 가져 가세요.

7월 독립 기념일 특별 세일

\$0 Down Payment | **\$0** First Payment | **\$0** Security Deposit



2012 NEW EQUUS

(STK:045620)
 MSRP \$59,650
 RESIDUAL \$25,650
 FOR 12K PER YEAR / 4 YEAR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COMP, REBATE

\$635 + TAX

2012 NEW GENESIS 3.8L

(STK:193210)
 MSRP \$35,260
 RESIDUAL \$16,572
 FOR 12K PER YEAR / 4 YEAR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COMP, REBATE



\$357 + TAX

2013 NEW SONATA GLS

(STK:511730)
 MSRP \$22,010
 RESIDUAL \$12,105
 FOR 12K PER YEAR / 4 YEAR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VALUED OWNER, ECO TRADE



\$212 + TAX

7월 한달 푸엔테힐스 현대가 드리는 혜택
 (행사기간 2012년 7월1일~31일)

1. 구입하는 모든분들께 유명 골프장에서 4분이 무료 라운딩 할 수 있는 티켓을 드립니다.
2. 평생 카워시



7월 한달간 무이자(0%)에 \$1000을 더 드립니다.

*2012년 소나타,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한함



HYUNDAI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Fleet Manager
찰리 정
213.276.8959



Sales
스티브 장
213.235.6825



Customer Care
제니 김
310.749.7599



Sales
매튜 김
714.797.3571



1-888-212-6431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s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